

1980년 4월 사북 노동자 투쟁*

이창언

1. 기억으로서의 80년 4월이 갖는 의미

1) 역사는 기억을 둘러싼 투쟁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힘 있는 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역사만을 기억 하도록 강요해왔던 증거는 수도 없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기억을 둘러싼 투쟁이라고도 한다. 지배세력은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확립하기 위해 인간의 의식, 무의식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규율을 강요하고 상이한 기억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을 가해왔던 것이다. 지배자들은 대중들의 기억이 행위를 촉발하기도 결정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식과 기억은 현대의 지배 메커니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한 법적·합리적 통제 방식만이 통용됐던 것이 아니라, 기억에 대한 전근대적인 통제 방식이 자행되기도 한다. 제3세계나

* 이 글은 2001년 사북청년회의소의 요청으로 강원도 정선군 사북, 고환 읍과 태백 시에서 현지 생활하며 구술과 문헌조사를 통해 작성했으며, 『탄광촌의 삶에 대한』(신인출판사)의 1, 3부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완한 글임을 미리 밝힌다. 이 자리를 빌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 선행 연구자들(황인호, 안해성, 김부용)과 사북 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해 심적, 물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사북청년회의소 황문구 회장님 이하 회원들, 사북 고환지역 광산노동자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1980~90년 초의 한국이 단적인 예인데, 여기서는 동의와 합의의 기제보다는, 기억에 대한 조작과 차단이 폭력적으로 이뤄져 왔다. 굴절된 한국 현대사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기억과 진실을 가로막기 위한 국가권력의 폭력을 우리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20년 전 사북 사건도 엄혹했던 권위주의 시대에, 권력에 의한 기억의 조작과 차단으로 재조명되지 못하고 단순한 노동자의 한풀이 혹은 난동으로, 사북 사태라는 이름으로 규정됐던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사북 노동자 투쟁을 단순히 사건이나 사태로 바라보는 지배의 시선이 아니라 저항 주체들의 시각에서 서서 조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권위주의적 국가의 억압적 노동 정책과 탄광 자본이 자행해온 극단적인 억압과 감시, 최소한의 인간적 삶조차도 무시해온 결과가 사북 노동자 대투쟁으로 표출됐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여기에 덧붙여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집단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탄광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일상적 삶의 맥락이 단위 사업장의 투쟁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의 연대 투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측면도 밝히고자 한다.

2) 80년 사북 노동자 투쟁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

사북 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기억의 형성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억의 왜곡 과정은 곧 역사적 진실의 왜곡 과정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사북 사건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당시 사건에 대한 단편적 기억, 몇 개의 사건에 대한 과편적 기억으로 전체를 이해하는 협소한 시각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언론과 신군부는 사북 사건을 1979~80년 노조 내부의 권력 갈등이라는 우발적 사태로, 술취한 광부들의 난폭한 행동과 파괴로 묘사해왔다. 즉 이들은 이재기 지부장과의 이원갑과의 노조 지부장직을 둘러싼 권력 다툼으로 사태가 촉발됐으며, 4월 21일 오후 2시 경찰 지프가 광부를 치는 우연적 사건을 계기로 광부들이 흥분, 폭도화되어 사태가 악화됐다는 논리를 유포시켜 왔다.

(전략) 광부들은 22일 밤 취재 중인 『신아일보』 취재자를 습격해 중상을 입히는 등 일부 취재 기자에게도 폭행을 했다. (중략) 난동을 주도한 광부들은 현지부장 이씨의 반대자인 이원갑씨와 이씨추종자들로 알려졌는데 당초 지난 16일과 18일 노조 지부사무실에서 지부장 이씨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다 사태가 확산됐다 (『한국일보』, 1980년 4월 24일).

하지만 이런 시각은 먼저 열악한 광산 노동 현실과 착취적 노동 구조를 은폐하며 항쟁 발발의 배경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사실 노조 내 권력 갈등을 주요인으로 규정한다면 동원탄좌 노동자와 가족들의 대중적 참여와 투쟁의 격렬성을 설명할 길이 없다. 하지만 당시 이런 잘못된 시각과 왜곡된 진실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신군부의 입을 대신한 관제언론을 통해 무섭게 대중에게 확산됐다.

당시 언론은 1980년 4월 24일 노동자와 관계기관이 11개항의 조건에 합의해 사북 항쟁이 일정정도 종결됐을 때까지도 언론의 본분을 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신군부의 보도통제가 해제됐을 때 언론이 이날 이후부터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지만 왜곡은 극에 달했다. 물론 4월 25일~5월 초에 언론은 열악한 광산 노동 현실에 대해 일정하게 기획 기사를 다루기는 한다. 하지만 이것도 구체적인 사태 발발의 원인 분석과 대안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사북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터져 나온 각지의 광산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의 예봉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신군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에 불과했다.

이제 사북 노동자 대투쟁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인식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총체성은 질곡의 한국 현대사, 혹은 1970년대~80년 초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과 그 맥락 속에서 동원탄좌의 노동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한다. 나아가 사북 노동자 투쟁의 역사적 의의를 재규정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사북 노동자 투쟁은 당시 정치 상황에서 대중운동 수준에서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중요한 출발점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북 노동자 투쟁은 전환적 국면에서의 역사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하고 세상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북 노동자 대투쟁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불온시됐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당시 사북 노동자 대투쟁이 발생한 후 한 달도 못되어 5·17 군사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했고, 모든 저항은 단호히 분쇄됐으며, 신군부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거부하는 어떠한 생각과 행동도 용납되지 않았다.

구속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성추행과 성폭력까지 당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고문과 매질은 가혹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때의 공포가 정신적인 장애로 남아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출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한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고문 후유증이 더욱 심각했고, 그 때의 고통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숨기면서 살아야 했다.

나는 글도 모르는데, 내가 동네일 잘 본다고 새마을 교육도 보내주고, 멸공 계몽 전담요원도 시키고 그랬어. 그런데 사건이 터지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어. 내가 부인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줌마들 잘못하는 게 내가 모두 선동해서 그렇다는 거야. 표창장도 보여주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끌려가서 얼마나 맞았는지, 가슴을 위로 무지막지하게 잡아 올리는 거야. 그러면 기절할 것 같이 아파. 안 당해본 사람은 정말 몰라. 소름이 돋고, 죽는다고 소리치면 내놔다가 다시 데리고 와선 발길로 막차는 거야. “빨갱이 같은 년아” 하면서 또 때리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잠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 너무 무서웠어 (김본연, 현 72세, 당시 부인회장, 사북 거주).

사북 노동자 대투쟁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대투쟁의 원인 제공자,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역에서 공존하고 있는 점도 일정하게 작용했다고 본다. 현재도 사태의 원인 제공자나 가해자들은 여전히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북을 떠나 숨죽여 살아야 했다. 한편 역사적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항쟁 관련 구속자들 중 고문의 후유증으로 한 많은 세상을 등진 분들이 많다. 이제 사북 노동자 투쟁이 발생한지도 어언 20여 년이 지났다.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 둘 세상을 등지고 있고 광부들의 애환이 서린 탄광도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폐광 직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북 노동자 투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신군부에 의해 고통을 당한 분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2. 사북 사건의 배경

1) 사회경제적 상황

동원탄좌 노동자들의 투쟁은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다양한 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사북 노동자 대투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말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위기가 반드시 거론되어야 한다. 1970년대 중후반은 외세의존적이며 수출지향적인 압축적 고도성장 전략을 추구하던 박정희의 경제 발전 전략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시기였다. 특히 1970년대 말 세계적인 오일쇼크는 한국 경제를 상당히 위축시키게 된다. 이런 여파는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수반했고, 그 결과 중소기업의 도산과 공장 가동율의 하락 속에서 실업률이 3.8%에서 1980년 5.0%로 상승하는 등 경제 위기가 조성됐다. 이런 경제 조건의 하락은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사북의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것이다 (김무용, 2000)

2) 정치적 상황

주지하듯이 분단 이후, 특히 5·16 군사 쿠데타를 분기점으로 18년간의 시기는 바로 민주주의가 부정된 권위주의 체제의 시기였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사망으로 억압과 사회적 통제는 일정하게 균열됐고 민주주의가 분출됐다. 사북 항쟁은 이와 같이 국가권력의 억압과 통제가 이완되는 정치적 공백기에서 발생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정치적 공간의 확장은 부문 대중운동의 활동 공간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열려진 공간에서 폭발한 광산 노동자들의 자생적 투쟁은 새로운 파시즘의 등장 속에서 항쟁의 성과를 보존하는 데는 확연한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특



히 지도력의 한계, 구체적인 전략전술의 부재, 조직화의 실패로 인해,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철저히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

3) 동원탄좌의 왜곡된 노동 구조

① 장시간 노동, 과도한 노동강도, 임금 착복

사북 노동자 대투쟁이 발생할 당시 동원탄좌가 있는 사북 읍은 민영탄광 중 두 번째의 규모를 자랑하는 삼척탄좌를 포함해 노동자 수만도 1만여 명, 인구 51,677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탄광촌이었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의 유류 파동을 겪으면서 석탄 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에는 연탄공장에서 탄광에 선금을 주고 석탄을 가져갈 정도로 동원탄좌 같은 대규모 탄광은 그야말로 떼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탄좌 노동자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광부들의 임금은 당시 평균 15만 5천 원으로, 1980년도 광산노련에서 집계한 최저 생계비 24만 원의 64%정도에 불과한 저임금이었다. 그나마 동원탄좌 측은 생산량을 줄이는 식으로 이중으로 착취해 왔다. 즉, 갱내에서 탄을 실은 차가 갱밖에 나오는 동안의 충격으로 탄의 부피가 20% 가량 줄어드

는 것을 이용, 생산량을 적게 측정해 왔던 것이다.

한편 도급제도 탄광 노동자의 임금 착취의 중요한 기제였다. 일반적으로 도급제라 하면 많이 일하면 많이 벌고 적게 일하면 돈이 적은 게 당연하지만 탄광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작업 방식을 트집 잡아 전월보다 임금이 적은 경우도 허다했다. 사실 자본가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도급제를 도입했는데, 이 도급제는 작도의 문제 등 많은 폐단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1980년~90년 광산 노동자 저항의 단골 메뉴로 등장할 정도였다. 업주들은 “석탄에 폐탄이 들어 있어 감량은 불가피하다”고 변명을 늘어놓지만, 노동자들은 “검탄원이 업자 편이기 때문에 폐탄이 없어도 적게 실었다는 등의 이유로 생산량을 줄이려고 한다며 분노했고, 업주들은 10톤을 9톤으로 감량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노임을 착복했다”고 증언한다.² 이 때문에 한 삽의 탄이라도 더 캐려고 무리한 작업을 하다보면, 갱내 보완시설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 낙반 사고로 부상당하기 일쑤였다.

② 열악한 주거·생활환경

석탄 공사 노동자의 경우 1980년 사북 노동자 항쟁이 나기 전까지 입주율이 95%정도였지만 민영탄광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 대규모 민영탄광은 외형상 입주율은 높았으나 사택, 아파트의 거주 공간으로서의 내실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아래의 신문기사는 1970~80년대 광산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해발 800m의 지장산 중턱에 자리 잡은 사북 광업소 광부 사택은 외부인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이방 지대다. 160동의 연립주택에 760가구 3000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입구에는 “아빠, 오늘도 안전!”이라는 표어

1 작도는 검수 과정에서 광부의 석탄 생산량을 검탄원이 눈대중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급제인 광부의 임금은 이 작도에 의한 생산량에 좌우된다.

2 「여기는 이동독자부」, 『한국일보』, 1979년 6월 7일. 황지 한성탄광 김영국(32), 황지 어룡탄광 신관식(35), 전국광노 이성식 사무국장(40) 등의 증언.

가 붙어있어 이들의 실생활을 한마디로 대변하고 있다. 산비탈에 웅기종기 서 있는 연립식 주택은 10년에 건립한 것으로 무척 낡아 있었고, 2.5Km 떨어진 시가지로 나가는 길은 경사 40도의 비탈길로, 차량 통행마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슬래브 단층인 연립식 주택 1동에 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한 가구가 방 2개 부엌 1개 (8평)로 구조가 똑같으나 수리를 하지 않아 벽과 천장이 허물어져 물이 새는 집이 많다. 화장실도 5~6개 동에 1개꼴로, 30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도 비슷하게 설치돼 있으나 겨울철이면 물이 나오지 않아 개울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욕탕은 1개로 그나마 여자들은 없어, 주부들이 시가지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신아일보』, 1980년 5월 3일).

당시 동원탄좌는 목욕탕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막장에서 탄을 캐다 새카만 얼굴로 집에 들어가곤 했다고 한다. 사택도 대부분 한 동에 4~5세대가 함께 사는 일자형 연립주택 구조에 방 하나, 부엌 하나로 불과 6~7평 크기에서 부모, 자식, 형제, 자매가 생활해야 했다. 시커먼 개울과 폐석더미 가득한 첩첩산중으로 들어온 탄광 노동자의 가족들은 단칸방의 사택조차도 1년 이상이 지나야 들어갈 수 있었고, 수도와 하수구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다. 여성들은 공동우물을 사용해야 했다. 이 공동우물은 아래와 증언과 같이 탄광 지역의 애환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사북 노동자 대투쟁이나 이후 87년 광산 지역 노동자 대투쟁을 이끈 일상의 정치적 학습, 투쟁 담론의 형성 공간이기도 했다.³

밤낮으로 물 때문에 싸웠어. 물도 초롱을 가지고 순서를 기다리다 어느 암체 같은 년이 바쁘다고 남 물동이 뒤에다 살짝 갖다 놓는거야. 그때는 물초롱이 누구건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싸우게 되는 거야. 그 물 한 초롱 받으라고. 뭐가 제일 원이냐면 강물 훔칠 내려가고 물 맑은 데 가서 물 실컷 쓰는게 원이

3 예를 들어 광부들의 사고나 이웃의 경조사까지 우물을 통해 알 수 있어서 '우물 방송'이란 말도 있다. 광부 아내들을 위한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물은 아줌마들의 공동체적 삶을 학습하는 장이기도 했으며, 정보를 교환하고, 열악한 환경의 탄광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곳이기도 했다.

었어. 빨래를 해도 아주 빨래가 꼬질꼬질해요. 빨래를 깨끗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 물이 없어 가지고. 사택 한 동에 다섯 집이 살아요. 다 젊은 새댁이야. 물이 없어 힘드니까, 누가 “야! 내일 빨래하러 가자” 하면, 아를 업고 짐심을 싸가지고 가. 어떤 집은 김밥, 어떤 집은 감자떡, 어떤 집은 고구마를 삶아 가지고 소풍을 가는 거야. 빨래를 한 보따리씩 이고, 음식을 싸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 거야. 개울에 내려가지고 빨래를 해서 돌에다 짖 널어. 한참 지나면 마르잖아. 그러면 또 보따리에 싸가지고 기차를 타고 집에 오는 거야. 또 회사에 목욕탕이 없어서 신랑들이 집에 돌아오면 새가매 가지고 아들이 아빠를 몰라. 우리도 아저씨가 우리 집 앞에 와야지 알지 안 그러면 몰라. 다 똑같거든. 새카매가지고. 80년에 그 일 겪고 나서 목욕탕지어지고 나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졌어(최옥자, 50세, 사북 사건 당시 29세, 현재 서울에서 식당 운영).

또한 부엌과 이불을 놓을 수 있는 벽장, 조그만 마루까지 6~7평 남짓 되는 사택들은 다섯 가구 한 동으로 지어져 있는데, 일제 때부터 내려오던 집도 있고, 워낙 날림으로 지어서 최소한의 방음도 되지 않아 옆집의 말소리가 들릴 지경이었다. 이런 공간과 불규칙적인 노동조건은 원만한 부부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고, 심각한 가정 파탄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문화 시설, 체육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잠자고 일터에 나가려 머무는 사택과 숙소는 다음날 작업장에서 노동할 수 있는 정도의 충전을 위한 공간이었다.⁴

③ 열악한 근로 조건과 작업장 환경

생활과 주거 환경의 열악함 못지 않게 근로 조건과 작업장 환경은 더욱 심각한 상태였다. 탄광 노동자는 지하 수백 미터 막장 속에서 고열과 분진,

4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휴식과 휴일의 부족은 노동력 재생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사실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의 고달픈 육체노동을 마치고 나면 곤죽처럼 지친 몸과 정신의 피로를 풀어볼 방법이 없었다. 갑반 근무 때는 한번 일하면 목욕, 식사 후 밤이 되기 때문에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지만, 근무가 자정에 끝나는 을방이나 아침 8시에 끝나는 병방에 들 때는 낮 시간을 보내는 일이 큰 고역이었다. 문화 공간과 후생복지 시설이 전문한 고한 사북에서 노동자들의 일부는 시간 보내기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술과 도박에 빠지게 되기도 했고 경찰의 검거로 구속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경찰은 9일 광산촌 일대 도박사범 일제 단속을 펼쳐 4건을 적발 16명을 도박혐의로 검거했다.” 『강원일보』, 1979년 5월 11일.



중rak과 출수의 위험 속에 시달리며 중노동을 해야 했다. 탄광 노동자의 생활과 현실을 다루면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바로 산재와 직업병 관련 부분이다. 광산에서는 사고로 매년 평균 200여 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부상당해 왔다. 즉, 일년이면 광부 10명 중 1명이 죽거나 다치고 10년이면 전 광부가 피해를 입는다는 결론이다. 사실 1970~90년대 전(全)산업에 비해 광산 재해율이 매우 높는데, 전산업 대비 광업 사망 재해자 비율이 무려 평균 14.4%나 됐다. 한편 일반 근로자 및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면, 당시 근로자 천 명당 사망자 비율도 일반 제조업에 비해 20배나 높았고, 1970~80년대 탄광의 산업 재해는 외국에 비해 현격히 높은 편이어서 석탄 생산 백만인 당 사망 재해자는 미국에 비해 23.5배나 높고 일본보다도 3.6배나 높았다.

광산 재해의 주원인은 기본적으로 기계화율의 저급성과 무리한 노동 강요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낙반과 운반 사고가 가장 많았다. 재해가 일어나는 원인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정부측은 관리 소홀, 본인 부주의 순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노동자가 심리적

으로 조금만 헤이해져도 사고가 일어나게 돼있는 낙후한 시설 문제라 하겠다. 전체 사망 재해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붕락과 낙반 운반 사고의 원인은 채탄법 개선과 기계기술 설비투자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또한 도급제 같은 노동 강요 형태의 임금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기계화가 이뤄져도 무리한 노동으로 안전 작업이 허술해져서 사고가 빈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탄광에는 직접 사고로 희생되는 사람들 외에 진폐증으로 고생하다 죽어 가는 광부들도 상당했다. 죽음의 직업병이라 하는 진폐증으로 탄광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다. 진폐는 미세한 가루가 폐에 들어가 폐 세포에 달라붙음으로써 폐를 굳게 만드는 불치병인데, 폐가 굳어 버리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몸이 쇠약해지면서 폐결핵, 기관지병,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등 합병증이 유발되고 결국은 쓰러진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1960년대~70년대 이래 지속된 광산 노동 조건의 직접적 결과이다.

④ 노동자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어용노조의 육성

더 나아가 회사는 암행독찰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일상을 감시했다. 사북 사태 당시 1979년도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삭제액을 추가 지급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들 징계자들 대부분이 암행독찰제에 의한 것이었다. 암행독찰제는 사북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도 광부들의 불만을 봉쇄하는 철저한 탄압 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 할 노동조합은 기업주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고 있을 뿐이었다. 왜곡된 노동 구조는 어용노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런 어용노조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고, 노조의 고질적인 부패와 어용적 작태는 사북 광산 노동자 대투쟁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3. 사북 노동자 대투쟁의 전개 과정

1) 지부장의 어용성과 부정선거

노동자들의 불만은 노조지부장 선거를 계기로 급기야 폭발한다. 이제기씨는 1964년 동탄 노조 지부가 설립되자 곧바로 회사측의 지원으로 1, 2대 지부장을 역임하던 중 1969년 1천 7백만 원의 보험금을 횡령해 구속됐던 경력을 갖고 있었다. 그 후 1976년 복직된 이제기씨는 조합 규약을 무시한 채 당선되는데, 이는 칠형제파라고 불리던 대의원들의 지지로 이뤄진 부정선거였다. 이들은 지부 선거가 간선제인 것을 이용해 깡패를 동원하고 돈봉투로 대의원을 매수해 노조를 장악했다. 수천 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동탄 노동조합 지부장 자리를 이용해 자재 납품권과 인감 거래⁵를 통해 상인들에게 사례비를 상납받아 왔던 것이다.

1979년 당시 동탄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6대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이제기를 퇴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동탄 노동자들 대부분은 이원갑이 당선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이제기가 당선됐다. 이제기는 대의원을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선출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자격 없는 비조합원인 사무직까지 포함해 대의원 수를 늘린 후 1979년 4월 3일 선거를 실시해 당선됐던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사게 됐고 노동자들은 “지부장 선거 이의 제기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광산 노동조합에 제출한다.

2) 광산 노동조합의 개입과 우유부단함

5 상인들은 탄광 노동자들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주고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인감을 확보하고 있었다.

6 이제기측의 반발에 광산노련이 결탁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5월 10일 지부장 직무대리로 이영근이 사복에 도착했지만 이제기는 재선거와 인수인계를 거부했고, 나아가 노동청에 지부의 지위, 산별노조에서의 지부 탈퇴 가능 여부 등을 문의했다고 한다. 사실 광산노련도 대규모 사업장인 동탄의 탈퇴가 이득이 될 리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수 있다. 이제기나 광산노련 지도부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조건에서 일정한 타협점을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광산노련은 4월 25일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 동탄 지부장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빠른 시일 내 재선거를 치를 것을 지시한다. 그러나 광산노련의 우유부단함과 무력함은 사태를 어렵게 만들어 나간다. 재선거는 실시되지 않았고 지부장 직무대리만 5번 바뀌었을 뿐이었다. 특히 조합 정상화를 저해한 이재기를 2대 지부장으로 위촉한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4대 지부장 직무대리인 신경을 해촉하고 5대 지부장으로 이재기를 재위촉하면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⁶

3) 연이은 부정선거와 임금 협상에서의 배신

이런 혼란함 속에서 이재기는 전국 광산노련 위원장에게 12월 31일까지 지부 임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약속해 놓고, 12월 15일 연임을 위해 대의원 22명을 제주도로 데리고 가서 항응과 선심 공세를 베푸는 가운데 추경예산 승인과 전 집행부의 신임투표를 강행한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탄광 회사들이 광산노련의 인상안을 거부하자 1980년 3월 2일 광산 협회에서 지부장들이 농성을 전개했지만, 이재기는 노사화합이라는 미명 아래 20% 인상에 도장을 찍었던 것이다.⁷

이원갑과 일련의 노동자들은 1980년 3월 5일 전국 광산노련에 이재기 측근 대의원 8명이 무자격자라며 전국 광산노조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리고 조속한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촉구서를 제출한다.

4) 불만의 증대

이재기의 노동자 기만이 본격화되자 1980년 3월부터는 신경 외 수천 명의 조합원이 연서명을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1980년 4월 16일에는 이원갑 등이 서울에 있는 광산노련 사무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 사태의 심각성과 노동자들의 분노에 당황한 광산노련은 사태 수습 차원에서, 임

⁷ 이재기는 광산노련의 80년 임금 인상 요구액 85,000원(42.75%)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20%에 합의했다.

금 인상 문제에 대한 이재기의 해명을 조건으로 노동자들을 설득했고 노동자들은 광산노련의 약속을 믿고 사복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후 이재기 지부장이 해명은커녕 무성의하고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노동자들은 이재기 퇴진과 40%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재기는 경찰에 신변 보장을 요청하고 경찰은 신경을 연행한다.

이에 격분한 노동자들은 사복 지서 앞에서 항의 농성을 전개했고 경찰은 허가를 얻어 집회를 개회할 것을 조건으로 신경을 석방한다. 그러나 사복 지서장은 다시 20일 집회 불허를 통보했고, 노동자들은 21일 노조 사무실에 집결, 지서장과 읍장에게 집회 허가 약속 불이행을 따졌다. 그러나 광부들 앞에 나선 지서장과 읍장은 “해산시키려고 한 말이지 집회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며 노동자들을 또 다시 기만했다.

오후 4시경 노동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50여 명의 경찰이 노조 사무실에 위싸기 시작하자 노동자들이 흥분했고, 정선 경찰서 이운선이 도주하려고 경찰 지프에 올라타자 노동자 원일호 등 4명은 경찰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프의 본넷에 올라타며 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때 지프에는 이운선과 형사 장운택이 타고 있었는데 겁에 질린 장운택이 엉겁결에 액셀을 밟아 버렸다. 지프는 원일호를 들이받은 후, 그의 허리와 다리를 깔아 넘기고 앞에서 있던 노동자들을 4명이나 들이받았다.

5) 격렬한 대중투쟁으로

이 사건의 소식은 경찰이 광부를 죽였다고 샅시간에 퍼졌고, 분노한 500여 명의 탄광 노동자들은 지서로 내려와 지서를 파괴하고 지서장에게 폭행을 가했다. 광업소로 되돌아온 광부들은 광업소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갖던 장성 경찰서장, 보안과장, 광업 소장 등에 항의하다 충돌해 장성 경찰서장 총경 등 경찰 관계자들을 폭행했다. 밤이 되면서 노동자들은 광업소 간부들과 어용노조 간부, 공화당 간부 집과 가제도구에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22일에는 광산 노동자와 가족까지 가세해 그 숫자가 3천여 명이 넘었다. 이

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사태에 숨어있던 지부장 처를 찾아내 사형을 가하기도 하는데, 부녀자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2일 오전 10시경부터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공포와 최루탄을 쏘는 4백여 명의 기동경찰대에 노동자들은 투석전으로 맞섰다. 오후 2시경 경찰은 노동자의 적극적인 저항에 밀려 사복 읍에서 완전히 철수했지만, 경찰 병력 중 순경 이덕수가 사망하고 20여 명이 1개월 이상의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50명이 중상을 입었다. 오후 3시 부녀자 200여 명은 광업소 계장의 사퇴와 상여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6) 사태 협상과 신군부의 배신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강원도지사 김성배를 위원장으로 하고 동탄의 고위 간부와 경찰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통해 수습을 시도했다. 4월 22일 1차 협상, 4월 23일 오후 2차 협상이 진행됐고, 4월 24일 11개항의 합의문서가 만들어졌다.⁸ 그러나 이 합의안은 상여금 인상과 이재기의 축출 정도의 수준으로 희생의 대가에 비해 약소하기 그지없었다.

사복 노동자 투쟁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4월 28일부터 정상 조업이 실시된다. 그러나 신군부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던 애초의 약속을 어기고 은밀하게 파업 주동자 색출과 적극 가담자 검거를 위한 작전에 돌입한다. 신군부는 5월 6일 사복 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사복 사태 주도자 13명과 사복 읍 공무원, 광업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수습 대책위 회의에, 총검으로 무장한 계엄군과 헌병들을 보내 노동자들을 무참히 연행해 갔다. 이날 이후 술한 사람들이 사복 항쟁과 관련돼 연행됐고, 70여 명이 넘는 광산 노동자와 부녀자들

8 당시 합의 사항은, 1) 이재기 지부장과 노조 집행부 사퇴, 2) 부상자 치료 및 보상금 회사 부담, 3) 피해 주택 복구 회사 부담, 4) 하청업체의 노임과 상여금 상향 조정 결의, 5) 신용협동조합 미지급금 회사 부담, 6) 79년 징계자 상여금 삭제액 지급, 7) 사건으로 인한 4일분 휴업 수당 지급, 8) 1~2월분 임금 인상 소급분 20%를 5월 지급하고 탄가 인상 때 재조정, 9) 상여금 250%를 400%로 인상, 10) 경찰 실력행사 절대 삼가, 11) 회사와 당국 사태 해결을 위한 최대한 노력 등이었다.

이 계엄군에게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다. 그 후 5월 이원갑, 신경 등 사건 관련자들은 계엄보통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징역 3년~1년 6개월 여의 형을 선고받는다.



정선경찰서의 4월은 너무나 길고도 추웠다. 날마다 연행되어 오는 광부들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너무나 비참했다. 군복으로 갈아입힌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연행되어온 광부들, 경찰들은 보복이라도 하듯 군화 발로 밟고 갖은 폭행을 가한다. 도대체 한나라 백성을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혹독하게 짓밟아야

하는지 ... 큰 주전자에 거꾸로 메달아 물고문을 가한다. 기절하면 물을 붓고 통닭구이라는 이름으로 콩콩 묶어 굴러가며 때리는데 실신하면 또 찬물세례다. ... 합수단의 조사가 끝나고 원주 1군사령부 헌병대로 옮겨갔다. (중략) 어느 날 재판을 마치고 첫 면회를 시켜주었는데 원주까지 올 차비가 없어 산나물을 캐어 팔아서 면회를 왔다는 부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가슴이 저러왔다. 암흑 같은 막장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산업 역군이라고 이름 부르며 어렵게나마 선하게 살아왔는데 이토록 참혹하게 처해야 하는지 ... 누구의 잘못을 접어두고라도 현실이 원망스럽다.⁹

4. 마치며: 역사적 의의와 계승의 과제

우리는 지금까지 사북 노동자 투쟁이 단순한 노조 내 권력 갈등으로 발생한 노-노 대립이 아님을 투쟁의 배경과 진행 과정을 통해 확인했다. 신군부와 언론에서는 지부장 부인에 대한 폭행과 일부 공직자의 순직을 노동자들의 폭력성과 연결시켜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비난하거나 사북 대투쟁의 역사

9 신경, 「80년 사북의 기억을 찾아서」, 정선지역발전연구소, 『1980년 4월 사북』, 2000, 150쪽.

적 의미를 폄하해 왔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설명했듯이 노동자들의 폭력성은 시대적 상황과 투쟁의 직접적 대상을 정확히 분석할 때만이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다.

사실 노동자들의 폭력성이 최정점을 보였던 21~22일에도 노동자들의 폭력은 제한된 수준의 대응적 폭력이었을 뿐이다. 노동자들의 폭력은 평소에 자신들을 착취한 관리자, 어용노조 간부, 공화당 관계자들에게 가해진 것이었으며, 그것도 한시적이었던 것은 당시 관제언론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한 자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노동자들은 자율방법대를 구성해 무기고를 지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들은 투쟁 기간 동안 최대한 지역의 안정과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협상 이후에는 광업소와 지역의 재가동을 위해 복구에도 열성적이었다 (김무용, 2000, 19쪽).

한편 언론이 매도한 '지부장 폭행에 앞장선 부녀자들'이라는 조작된 이미지도 재평가가 필요하다. 당시 부녀자들은 투쟁의 전과정에서 흥분한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의견을 통합시키고 있지 못할 때 요구 조건을 정리 제시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광산의 열악한 현실과 회사의 횡포, 지부장의 어용성에 가장 큰 피해자였던 이들은 사태 해결에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투쟁의 전 과정에서 보여준 노동자들의 자치능력과 높은 도덕성에 대해 재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권력의 부녀자들에 대한 성폭행과 인권 유린의 실상에 대해서도 엄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사북 노동자 투쟁은 운동사적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사북 노동자 투쟁은 박정희 사망과 서울의 봄, 신군부의 등장이라는 전환적 국면에서 발생했으며, 그 결과 단위 사업장을 넘어 전국의 제조업 노동자들과 탄광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영향을 주었다. 1980년에는 사북 투쟁에 고무되어, 여러 기업의 노동자들이 연이어 임금 인상 투쟁과 농성 등을 벌였기 때문이다. 한편 사북 노동자 투쟁은 1980년 보다 조직적이며 목적의식적인 노동운동의 정립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도 했다. 사흘간의 동원탄좌 노동자들의 투쟁이 '실패' 하면서, 그 원인이 견결한 지도부와 조직의 부재에 있다는 점이 운동 진영 내부에서 검토됐고, 이후 운동 진영에서는 노학연대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실패(?)한 사북 노동자 투쟁은 역설적으로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진영에서 이를 거울 삼아 지도와 대중의 통일성을 깊이 논의하는 계기가 됐고, 그 결과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전투적 노동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¹⁰ 물론 사북 노동자 투쟁은 한계적이었지만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광산 노동자 정책의 변화에도 일정한 계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북 노동자 투쟁이후 동원 복지회관의 건립과 임금 인상, 각종 교육비 지원 등 복지 지원 등이 이뤄지기도 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았던 관행과 제도가 사흘간의 투쟁을 통해 부족하지만 일정 정도 변화됐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북 사건은 지형적 고립과 지도부의 한계, 제기된 요구상의 한계가 존재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국가권력에 맞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사를 건 한판 싸움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한계를 안고 있지만 “항쟁적 성격을 갖는 노동자 투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¹¹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 투쟁의 역사와 주역들이 올바른 대접을

10 학생운동 세력은 사북 동원탄좌의 파업 같은 격렬한 노동 파업에서 대중적인 노동 세력의 움직임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협적일 수 있는지를 깨달았고,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고양하는 것과 노동자의 노조 조직을 돕고, 그들의 노동 투쟁을 더 큰 정치적 목표로 이끄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1980년대 초기의 학생운동가 서클에서는 격렬한 이념논쟁이 벌어진 후 노학연대가 급진적 학생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전략으로 자리잡는다. 그리하여 1980년대 초부터 이런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공장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크게 증가했다(구해근, 2001, 160쪽).

11 김무용선생은 사북 노동자 항쟁은 처음에 파업 투쟁에서 출발해, 나중에 노동자 가족도 참여하는 투쟁 형태로 발전했으며, 항쟁의 참여 세력이 노동자에서 그 가족으로 확대됐음에 주목한다. “파업 투쟁이 대중 투쟁, 항쟁으로 이행하면서 주도 세력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점에서 사북 사태는 순수한 노동운동의 개념보다는 포괄적인 용어로 ‘항쟁’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아래로부터 노동자 자치 공동체의 맹아 또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사북 노동자 투쟁의 또 다른 의의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무용, 『1980년 사북 노동자 항쟁의 새로운 이해와 전망』, 정선발전연구소편, 『1980년 4월 사북』, 2000, 18~19쪽.

받고 있는가 하는 의문은 지울 수 없다. 투쟁의 지도부였던 이원갑, 신경씨 등은 민주화운동의 유공자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최근 사북 노동자 투쟁에 대한 성격 규명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려는 노력이 지역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 한 예가 정선지역발전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자료집 발간 사업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의 일부 인사들은 석탄 문화제를 사북 노동자 투쟁의 정신 계승 행사와 연동시켜 진행하자는 안도 제출하고 있다. 또한 당시 사북 노동자 투쟁의 원인 제공자였던 사람들조차도 사북 노동자 투쟁에 대해 ‘항쟁’이었다고 말하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일정한 반성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마당에 가해자였던 석탄 산업의 운명처럼 가해자도 피해자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지금, 사북 노동자 투쟁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구해근 2002,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 김무웅 2000, 『1980 사북 노동자 항쟁의 이해와 전망』, 『80년 봄 사북 사건』, 정선지역발전연구소.
- 김창완 2000, 『80년 봄 사북 사건』, 정선지역발전연구소.
- 김중근 1980, 『사북 탄광 사태의 심층 분석』, 『신동아』, 6월호.
- 사북청년회의소 편, 『탄광촌의 삶과 애환』, 선인출판사.
- 성희직 1997, 『탄광 지역 노동운동의 시대적 변화』, 『강원 사회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 안재성 1988, 『사북 노동자 총파업』, 『타오르는 광산』, 돌베개.
-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 민주주의 정치 변동』, 당대.
- 2000, 『박정희 시대의 억압과 저항의 변증법: 박정희 정권 하의 정치변동과 저항운동』,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원회 편, 『박정희실정백서』.
- 태백인권선교협의회 1988, 『광산 민중 현실』.
- 황인호 1984, 『사북사태 진상보고서』, 『강원일보』, 『동아일보』, 『신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1977~88년).
- 태백석탄박물관홈페이지 <http://coalmuseum.or.kr/>.

이창언 lce518@hanmail.net | 지방의제21 사무국장.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중앙위원 역임. 저서로는 『탄광촌의 삶과 애환』(선인, 2001) 등이 있다.